

#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 및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ends and Perceptions of Spatial Changes in University Libraries

정재영 (Jae-Young Chung)\*\*

김희전 (Hee-Jeon Kim)\*\*\*

### 초록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 및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기초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지난 20년간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총 99건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었고, 최근 대학의 예산 긴축정책에 따라 신·증축보다 리모델링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특징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 수용, 이용자 수 증대를 목적으로 도서관 내 휴게공간 확장과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추구, 혁신적·창의적인 공간 설치 지향 등이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장점은 다양한 공간의 제공과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등이며, 시설유지비 증가와 관리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간변화가 시대적 트렌드만 반영하고 서비스 및 대학도서관의 실질적 가치에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획일성과 특징 상실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는 대학도서관만의 차별성 확보와 다양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y based on the trend of the spatial change in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librarian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from 2000 to 2020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ies were identified through a surve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was a total of 99 spatial change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nationwide over the past 20 years, including new construction, extension and remodeling. In recent years,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university's budget tightening policy, the university libraries focus on remodeling rather than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hange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resting areas have been expanded in the libraries. Second, The libraries are in pursuit of pleasant and comfortable atmosphere. Third, the libraries aim to establish an innovative and creative space. All these chang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accommodate the requests of us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users. It was also found that spatial change has advantages in these two points: providing various spac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library visitors. On the other hand, spatial change has the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d cost of maintaining the facility and the lack of management manpower. Additionally, a few more problems of spatial change are pointed out: first, spatial change only reflects the trend of the times without making a big change in the services and the actual value of the university library. Second, it has made university libraries standardized losing each library's own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patial change of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secure the distinctiveness of the university library, accommodate various changes, and aim for the symbolism that can prove the value and existence of the university library.

키워드: 대학도서관 공간, 공간변화, 공간계획, 공간 전략, 대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Spaces, Space Change, Space Planning, Space Strategy, University Library

\* 이 연구는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22집(202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팀장(jaeyoung@sogang.ac.kr) (제1저자)

\*\*\*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차장(hjkim11@catholic.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1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31-5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031>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수용을 위한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과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 내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동이 언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변화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학도서관 신·증축 및 리모델링에 투입된 예산이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재영, 2020). 그러나 정재영(2012)과 장윤금(2014)의 연구 이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공간변화와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습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지식과 지혜의 전달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이자 거대한 장서를 담고 있는 지식과 기억의 원천이다. 최근 가상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전자저널, Web DB,

e-Book 등 전자정보원 이용의 활성화로 대학도서관의 공간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도서관을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 그리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대학 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을 연구한다는 것, 그리고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물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대학도서관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자, 대학도서관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며 대학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점검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간은 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사서와 정보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학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공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요인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보다 본질적

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를 야기한 대학과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의 신축,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관련 주요 학회지와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지, 대학도서관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자료 및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URIC) 등을 활용하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과 NAVER, Google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대학도서관에 소요 예산, 공간변화 범위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식조사는 공간의 변화 요인과 문제점을 찾고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넷째, 공간변화의 특징과 인식조사를 토대로 현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향후 추구해야 할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이 시대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 2. 대학도서관 공간의 중요성 및 공간변화의 특징

### 2.1 대학도서관 공간의 중요성과 역할

도서관의 3요소는 ‘자료’, ‘시설’, ‘인력’이다(한국도서관협회, 1965). 도서관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 중 최근 들어 시설, 즉 ‘공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한 정보활동보다 자신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및 대학교육이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점과 변화된 이용자들의 성향 변화도 대학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카페 및 각종 스터디 공간, 그리고 대학 내 각 건물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점도 대학도서관들이 공간변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서관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과

별개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 및 대학도서관 평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대학도서관 공간의 구성과 기능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의 전략계획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공간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 있다. Saunders(2015)은 63개 대학도서관의 전략계획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서(Collections)와 공간(Physical Space)이 대학도서관의 전략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60개 대학도서관(94.2%)의 전략계획 속에 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서가 전략계획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 활동 및 협력활동 공간 그리고 기술적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서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히려 장서보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ochumsen, Skot-Hansen, Hvenegaard(2010)는 도서관 공간은 경험(Experience), 참여(Involvement), 역량 강화(Empowerment), 그리고 혁신(Innovation)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Faulkner-Brown(1999)과 McDonald(2006)는 이상적인 도서관이 갖는 원칙과 다양한 특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ation Space),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의

미하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배움의 공간(Learning Space), 경험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와 학습공간의 선택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만남의 공간(Meeting Space), 집과 학교 사이의 제3의 공간으로, 분절된 사회에서 다른 관심사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말한다.

넷째, 창의적 공간(Performative),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을 포함한다.

정재영(2020)은 대학도서관 공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자 중심인 이유는 고유한 학문적 전통과 학술 연구의 중심이라는 명성과 권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학술정보 제공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위상과 요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상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이용자 요구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가치란 단순한 수치적 또는 철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 그리고 서비스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단위별로 가장 큰 규모를 갖는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의 확산과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제공의 증가에 따라 공간 효율성에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대학 내 교사 건축 공간 부족과 건축재정 정책 기조 및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변화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은 서비스 또는 사서의 역할이 개입되지 않는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시설과 환경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이 도서관 이용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긍정적인 면이나 공간에 시선이 집중됨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의 상대적 역할 감소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며(정재영, 2020), 따라서 향후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2.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특징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는 시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을 보여준다. 시대적 요인이라 함은 대학도서관이 마주하고 있는 물리적 노후화와 시대적 노후화<sup>1)</sup>를 의미하며 환경적 요인은 대학도서관이 처한 현실<sup>2)</sup>과 연관되어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가 시작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재영, 2012).

첫째, 도서관 이용자 수의 감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환경과 정보이용행태 변화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대 준공된 대학도서관 건물이 약 50여 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늘어나는 장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도서관 내에 새로운 역할을 할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기존의 도서관 공간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 및 성향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성향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대형서점이나 북카페 등과 같은 책을 매개로 한 타 주체들과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상업적 시설의 공간 구성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재훈, 2020; 장윤금, 2014; 정재영, 2020).

첫째, 공간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다각화로 공간의 다양성이 추구하고 있다. 자료보존과 열람 공간 위주의 전통적 도서관은 개인 공간과 협력 활동공간 등 이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1) 물리적 노후화는 건물의 각종 부위 및 구조체, 내·외장 등의 노후화를 의미하며, 시대적 노후화는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 수준의 향상과 기술 혁신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책을 매개로 누리던 우월적 지위가 낮아졌으며, 사서의 정보제공 역할 또한 다양한 상업적 검색엔진 등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으로 변화·제공되고 있다. 둘째, 휴식 및 체험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휴게시설과 복합적인 학습·문화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간을 끝없이 확장할 수 없으므로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박이 가구나 고정형 공간을 최소화하고, 복도와 방의 구분을 없애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간의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기능과 역할이 혼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하나의 공간에서 미디어 및 정보 관련 활동, 휴식 등이 가능한 규제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색상과 가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흑백에 머물러 있던 대학도서관 공간의 색상과 정형화된 사각형 중심의 가구들이 화려한 색상과 비정형화된 가구로 바뀌고 있다. 여섯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한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시된 반면, 지금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열람석 배치 및 공간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각 개인의 공간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이용 시간대나 계절,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자리를 선택하여 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창의적·협력적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대학도서관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형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메이커스페이스는 2017년 전국적으로 122곳이 설치·운영되었으며(김보영, 박

승진, 2017), 2018년에는 233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설치되었다(장윤금, 201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주관기관 6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중 대학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1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장윤금(2018)은 대학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할 경우 새로운 창조공간의 마련과 자율적이며 협업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공간적 의의와 가치를 넘어 도서관의 목표 및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목표에 부합되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과 운영 방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메이커스페이스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한 주장과 함께 우려에 대한 시각도 있다. 대학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 창의적·협력적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공간인 아이디어팩토리, 무한상상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정부의 주도로 이미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간을 구성할 경우 이들 시설과의 차별화는 물론 도서관만의 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재영, 2020).

메이커스페이스가 대학도서관 공간에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이공계 일부 학과의 실습실로 전락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 직원 외에 교내·외 교수진과 기업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 인력풀의 확보, 아이디어와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외 타 기관과

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김보영, 곽승진, 2017).

이와 더불어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예산과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활동과 교육을 담당할 사서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메이커스페이스가 3D 프린터 활용 등을 포함한 단순한 기술 체험의 공간이 되어가고 도서관이나 사서의 역할이나 개입이 없다면 도서관의 공간만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재영, 2020). 따라서 메이커스페이스 도입이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미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다. 즉, 대학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장서 소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 공간제공과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 3.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조사

#### 3.1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료를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 문헌정보학 관련 주요 학회지와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지, 대학도서관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자료 등을 통해 공간변화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를 활용하여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과 NAVER, Google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 '리모델링', '신축'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언론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와 관련된 내용만을 활용하였다.

셋째, 수집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 8월 23일(월)부터 9월 3일(금)까지 2주간 해당 대학도서관에 소요 예산, 공간변화 범위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 3.2 공간변화 통계

대학도서관 공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 국내 대학도서관의 신축,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2년(예정)까지 총 9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신축	7	0	1	0	1	1	1	2	1	2	1	1	2	0	3	2	0	1	1	1	28
증축	0	0	1	0	0	0	2	1	0	0	0	0	0	0	3	1	1	1	0	0	10
리모델링	0	2	2	0	0	0	2	1	0	1	1	2	1	8	9	7	11	9	5	0	61
합계	7	2	4	0	1	1	5	4	1	3	2	3	3	8	15	10	12	11	6	1	99*

\* 증축 및 리모델링 동시 진행한 건수 5건 포함

※ 상세 자료는 [부록] 전국 대학도서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현황(2003-2021) 참조

〈표 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소요 비용

구분	신축	증축	리모델링	합계
예산(원)	848,839,000,000	145,287,000,000	* 109,879,135,000	1,104,005,135,000

\* 증축 및 리모델링 중복건은 증축에 포함(숙명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목포대, 한국외국어대)

이 중 5건은 증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변화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리모델링이 61건(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축 28건(28.3%), 증축 10건(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가 201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이후 공간변화 건수는 63건으로 전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99건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리모델링이 49건(77.7%)으로 2016년 이후에는 주로 리모델링 위주의 공간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변화에 투입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총 1,104,005,135,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축이 848,839,000,000원, 증축이 145,287,000,000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109,879,13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 3.3 조사결과 시사점

조사결과, 2003년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의 변화가 어느 시점의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공간변화 중 ‘신축’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변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반값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며 대학이 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공간변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리모델링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건수가 증가한 것은 대학도서관평가 지표 3.2.1시설과 환경개선 16번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총 투자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도서관



관들이 평가에 대비해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이 제도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촉진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평가 지표 외에 최근 공간변화 증가의 원인으로 창의, 협업, 융합 등이 대학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2019~2023」 추진 과제(2)에 '창의적, 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이 포함되어 대학도서관을 열람 중심 공간에서 협업 및 취·창업 활동공간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9). 즉,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기존의 대학도서관 열람실 공간을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활동공간, 메이커 공간 그리고 진로 및 취·창업 활동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대학도서관도 메이커스페이스,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 등 창의적 복합문화공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외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공간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학의 상황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4.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인식조사

##### 4.1 자료수집 및 설계

공간변화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과 방법, 대상 및 응답자 수 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7일(화)부터 10월 1일(금)까지 총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KSDC Online Survey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분석은 SPSS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및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교 188개관의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가능한 사서의 이메일을 조사

<표 3>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1년 9월 7일(화) ~ 10월 1일(금)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이메일 배포) KSDC Online Survey
조사대상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도서관 소속 사서
응답자 수	121명

하여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총 12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고, 설문조사 문항은 ‘소속기관 특성’, ‘응답자 개인특성’,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실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인식과 방향’의 4개 영역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 3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해당 설문 내용은 물론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 4.2 분석결과

### 4.2.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 기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62명(51.2%)

으로 ‘남자’ 59명(48.8%) 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3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 38명(31.4%), ‘40대’ 35명(28.9%), ‘20대’ 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별 분포는 ‘20년 이상’이 51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20년 미만’ 31명(25.6%), ‘5년~10년 미만’ 26명(21.5%), ‘5년 미만’ 13명(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 4.2.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이유

공간변화를 실시한 대학도서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간변화의 이유를 우선순위형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공간변화 이유의 1순위는 ‘시설의 노후화’가 25.5%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18.6%), ‘공간 부족’(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가 3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17.6%), ‘공간 부족’(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가 2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및 대학

<표 4>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	59 48.8%
		여	62 51.2%
	연령	20대	5 4.1%
		30대	43 35.6%
		40대	35 28.9%
		50대 이상	38 31.4%
	근무 기간	5년 미만	13 10.7%
		5년 ~ 10년 미만	26 21.5%
		10년 ~ 20년 미만	31 25.6%
		20년 이상	51 42.2%
합계		121	100.0%

〈표 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이유(우선순위)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자의 요구	11	10.8%	12	11.8%	10	9.8%	67	4
시설의 노후화	26	25.5%	36	35.3%	15	14.7%	165	1
공간 부족(서고 부족 등)	18	17.6%	13	12.7%	7	6.9%	87	3
공간 배치의 효율화	11	10.8%	11	10.8%	7	6.9%	62	5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	19	18.6%	18	17.6%	27	26.4%	120	2
대학/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일환	5	4.9%	6	5.9%	16	15.7%	43	7
국고지원 사업비 할당	12	11.8%	4	3.9%	11	10.8%	55	6
타 대학도서관 벤치마킹 결과	0	0.0%	2	2.0%	9	8.8%	13	8
합계	102	100.0%	102	100.0%	102	100.0%		

※ 121명의 응답자 중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사항이 없는 응답자 19명은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자 수는 102명임.

도서관 발전계획 일환'(15.7%), '시설의 노후화'(14.7%)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문항의 종합분석은 1순위 빈도값의 3배수, 2순위 빈도값의 2배수, 3순위 빈도값의 1배수를 가중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의 노후화'가 16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의 제공 필요'(120점), '공간 부족'(87점), '이용자의 요구'(67점), '국고 지원 사업비 할당'(55점), '공간 배치의 효율화'

(62점), '대학/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일환'(43점), '타 대학도서관 벤치마킹 결과'(1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 4.2.3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효과 인식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문항의 응답자(102명)는 복수응답을 통해 총 172건을 선택하였다. 응답 수 172건(복수응

〈표 6〉 도서관 공간변화 효과(장점)(복수응답)

공간변화에 따른 효과(장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 수 기준(N=172건)	응답자 수 기준(N=102명)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61	24.6%	59.8%
장서 및 서비스 이용의 증가	23	9.3%	22.5%
열람석 및 서가 공간의 충분한 확보	36	14.5%	35.3%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제공	84	33.9%	82.4%
도서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43	17.3%	42.2%
기타	1	0.4%	1.0%
합계	248	100.0%	-

답 빈도 248건)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제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24.6%), '도서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17.3%), '열람석 및 서가 공간의 충분한 확보'(14.5%), '장서 및 서비스 이용의 증가'(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 수(102명)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응답자 82.4%가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제공'이라는 공간변화 효과에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는 59.8%로 응답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공간변화는 이용자 수 증가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간변화 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4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문제점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 문항의 응답자(102명)는 복수응답을 통해 총 172건을 선택하였다. 응답 수(172건)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살펴보면 '도서관 관리 인원 부족'이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리 공간 확대에 인한 업무부담 가중'(30.2%), '시설 유

지비용 증가'(28.5%), '이용자와 사서 간 접점 감소'(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 수(102명)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도서관 관리 인원 부족'과 '관리 공간 확대에 의한 업무부담 가중'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었고 '시설 유지비용 증가'도 과반에 근접하였다. 도서관의 공간변화는 신규 공간 창출과 이용자 만족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도서관에 관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인식도

최근 국내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최근의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2.5%)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공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이용자 수 및 만

<표 7> 도서관 공간변화 문제점(단점)(복수응답)

공간변화에 따른 문제점(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 수 기준(N=172건)	응답자 수 기준(N=102명)
관리 공간 확대에 업무 부담 가중	52	30.2%	51.0%
이용자와 사서 간 접점 감소	8	4.6%	7.8%
시설 유지비용 증가	49	28.5%	48.0%
도서관 관리 인원 부족	56	32.6%	54.9%
기타	7	4.1%	6.9%
합계	172	100.0%	-

〈표 8〉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인식도

귀하는 최근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그룹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5%	
보통이다	10		8.3%
대체로 그렇다	54	44.6%	89.2%
매우 그렇다	54	44.6%	
합계	121		100.0

\*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응답을 합산하여 그룹 백분율을 산출함

속도 증가', '도서관 위상 및 역할 확대',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공간 창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는 '대학도서관의 본질보다 시대 트렌드만 반영', '휴게시설만 증가하고 도서관의 실질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일시적인 관심일 뿐 장기적인 서비스의 변화는 없다', '계속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도서관 공간변화의 획일화', '대학도서관만의 특성 소실'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4.2.6 대학도서관 역할 및 위상에 미치는 공간변화의 영향력

공간변화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가 도서관 역할과 위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5.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간변화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5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38.8%), '보통이다'(2.5%), '대체로 그렇지 않다'(1.7%) 순으로 나타났다.

#### 4.2.7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1순위는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가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 9〉 대학도서관 역할 및 위상에 미치는 공간변화의 영향력

공간의 변화가 향후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그룹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1.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1.7%	
보통이다	3		2.5%
대체로 그렇다	47	38.8%	95.8%
매우 그렇다	69	57.0%	
합계	121		100.0%

〈표 10〉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우선순위)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점수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	60	49.6%	21	17.3%	16	13.2%	238	1
교육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공유공간	36	29.7%	49	40.5%	10	8.2%	216	2
다양한 문화활동과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	11	9.1%	10	8.3%	18	14.9%	71	4
취업, 창업, 진로 및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교류/협업하는 커뮤니티 장소	7	5.8%	24	19.8%	29	24.0%	98	3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	5	4.1%	11	9.1%	25	20.7%	62	5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엔터테인먼트) 장소	2	1.7%	6	5.0%	23	19.0%	41	6
합계	121	100.0%	121	100.0%	121	100.0%		

'교육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공유공간'(29.7%), '다양한 문화활동과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학습공유공간'이 4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장소'(19.8%),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커뮤니티 장소'가 2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20.7%),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 장소'(1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우선순위 종합분석 결과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가 23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공유공간'(216점), '커뮤니티 장소'(98점), '복합문화공간'(71점), '창의적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 장소'(62점), '미디어 활용 및 여가활동 장소'(4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3 조사결과 시사점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며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와 FGI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원인으로는 '시설의 노후화', '다양한 공간제공의 필요', '공간 부족',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 등으로 나타나 물리적 노후화와 시대적 노후화가 공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효과와 문제점의 경우,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제공', '도서관 방문자 수의 증가', 그리고 '도서관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증대' 등이 공간변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라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공간 확대에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이 다양화됨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와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이유로 제시된 '변화 필요 요구의 수용'과 '시대

변화의 반영' 등은 대학도서관의 적절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된 이유 중 '시대적 트렌드만 반영', '휴게공간의 증가', '장기적 안목 필요', '모든 도서관의 획일화',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 소실' 등은 현재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간변화 시 대학도서관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교육공간'이 가장 많이 제안된 것은 대학도서관이 학습공유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95.9%(121명 중 116명)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위상 및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 공간의 궁극적 지향점이 '학습과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장소'와 '교육과 연구지원에 필요한 학습공유공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

### 5.1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지역도서관을 아마존 서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rdoukoutas(2018)의 기고문 "Amazon Should Replace Local Libraries to Save Taxpayers Money"를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도서관과 대형서점이 책을 보거나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유사하고, 오히려 서점이 이용의 패턴과 선호도를 감안한 발 빠른 변화와 대응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보다 더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도서관을 없애고 대형서점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도서관이 이용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에만 치중하고 도서관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의 확보 특히, 카페, 휴게실 등의 편의 공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즉, 대학도서관이 카페나 서점과 같은 상업 시설과의 차이점이 사라질 때 마주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학도서관은 북카페나 대형서점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단지 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간도 유사하게 닮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기존의 대학도서관 공간 관련 연구들 또한 물리적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아닌, 활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학도서관의 공간 문제를 '도서관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재영, 202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는 휴게공간이나 컴퓨터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데이터일 뿐 도서관이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도

서관이 대학의 학문적 목적과 미션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Jackson & Hahn, 2011).

학생들의 대학도서관 내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 공간과의 선호도를 조사한 임선정(2017)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 내 디지털 공유공간에 대한 만족도보다 아날로그 공유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게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혹은 디지털 공간만을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ennett(2005)는 학생들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와 함께 사색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lczewski (2014)는 도서관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철학, 정신과 영혼은 일반적인 건물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쾌적한 휴게공간의 제공과 첨단 디지털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전통적인 도서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디지털 환경이나 온라인 콘텐츠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지성, 연구, 사색 등의 상징적 가치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무조건적인 도서관 공간의 디지털화와 첨단화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롭게 공간변화를 시도하려는 대학도서관 역시 이전에 공간변화를 시도한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자관에 구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공간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 모든 국내 대학도서관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최근 신축한 도서관 몇 곳만 봐도 전국 대학도서관의 추세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재영(2012)은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첫째, 시설 측면에서 볼 때 복합학습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장서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은 배제한 채 공간 확보를 위해 치우고 없애야 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사서 측면에서 볼 때 공간이 다양해지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이 학습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 아닌 휴식과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 5.2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과 활용에 있어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대학도서관이 갖는 대학의 상징이자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술적인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공간변화가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간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광현(2018)은 건축의 설계와 공간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 있다.

건축설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는, 건축설계는 매번 용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도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건물이든 특정한 사회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용도를 위해 지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건축물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주문생산 품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용도'를 단지 편리함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잠깐 멈추고 짓고자 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보라. 모든 건축에는 이러저러하게 만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는 늘 '시작'이라는 본질이 있다.

위의 제안처럼 대학도서관도 대학도서관의 시작과 본질, 공간을 통해 구현하고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목적,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재영(2020)은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 '대학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이자, 대학도서관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색깔과 기준으로서의 이용자와 도서관의 공통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의를 기초로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대학'과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내포하고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나름의 상징성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의 심장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분위기의 창출과 진보한 기술의 수용,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대학도서관만의 특징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활동공간이라는 개념 역시 대학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복합 학습공간'이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은 그 자체로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정재영, 2020).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구상을 통해 공간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대학도서관을 무조건 모방함에 따라 해당 대학만의 특성이나 개성이 사라지고 모든 대학도서관이 획일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장윤금, 2015).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로 '시대적 트렌드만 반영', '휴게공간의 증가', '장기적 안목 필요', '모든 도서관의 획일화',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 소실' 등 국내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문제점이 적절히 지적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간 전략은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여타 시설이나 기관들과 공간 구성에서 차이가 없고 대학도서관만의 상징과 차별화,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줄 수 없다면 대학도서관의 필요성과 존재에 대한 의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정재영, 2020).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은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에 대하여 첫째, 이용자를 환영하고, 이용자그룹별 주제서비스를 강화하며,

머물고 싶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인 이용자 지향적 공간, 둘째, 공동학습 활동과 이용자의 다매체 학습·정보추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학습 생태계 조성, 셋째, 대학의 상징으로서의 도서관을 제시하고 있다.

Scoulas(2021)의 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도서관과 온라인을 통한 가상 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소속감 및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물 공간과 가상공간의 조화 즉, 하이브리드 환경의 적절한 결합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란 '대학 간 차별성', '책을 매개로 한 상업적 유사기관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경험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대학 간의 차별성'이란 대학의 특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 간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쾌적화와 첨단화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국내 모든 대학도서관이 유사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을 매개로 한 상업적 시설과의 차별성'은 북카페나 대형서점 공간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학도서관이 이들과 유사한 공간 형태를 추구하기보다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공간, 즉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조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험의 차별성'은 다른 기관이나 공간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대학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의 제공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재방문하도록 하는 유인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용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시각과 공간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상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공간에 상징성과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6. 결 론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했거나 혹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결과이다. 그동안의 행위와 대처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현재 위기는 과거의 노력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대학도서관의 모습은 현재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투영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공간'이란 이슈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서비스 기능에 따라 구분되던 대학도서관 공간은 점차 공간 구분이 사라지고 개방적이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도 미래에 또 어떤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할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공간은 시대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며

변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이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뿐만 아니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공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간 속에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존속하는 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지혜를 통해 연결되는 장소이자 지식의 재창출 공간, 그리고 수많은 지식 앞에 겸손함을 느끼고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개별 대학도서관의 특징이 반영되고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적 진보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함께, 대학도서관 공간에 상징성과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 공간은 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공간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이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할 때에도 사회 속의 다양한 공간 및 시설 등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 디지털 학습 커먼스, 그리고 휴게공간의 균형적 제공 등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9).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 2019-2023.
- 김광현 (2018).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김광현 교수의 건축 수업. 파주: 뜨인들.
- 김보영, 곽승진 (2017). 대학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59-279.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09.259>
- 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2), 227-25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2.227>
-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33-15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이재훈 (2020). 버클리대학의 도서관 사례로 보는 대학도서관 실내공간의 설계방향 연구. 교육시설, 27(5), 3-12. <https://doi.org/10.7859/KIEF.2020.27.5.001>

- 임선정 (2017). 대학도서관 커뮤니티 공유공간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장윤금 (2014).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변화 및 평가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4), 236-237.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229>
- 장윤금 (201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61-377.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61>
- 장윤금 (2018).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425-446.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425>
- 정재영 (2012). 대학도서관 공간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33-352.  
<http://dx.doi.org/10.16981/kliss.43.3.201209.333>
- 정재영 (2020). 대학도서관 '공간'의 의미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 3, 1-31.
- 중소벤처기업부 (2020.5.6.).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812>
- 한국도서관협회 (1965).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ennett, S. (2005). Righting the Balance. in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Library as Place: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10-24. Available:  
<https://www.clir.org/wp-content/uploads/sites/6/pub129.pdf>
- Faulkner-Brown, H. (1999). Some thoughts on the design of major library buildings. In: Intelligent Library Buildings: Marie-Françoise Bisbrouck and and M. Chauveinc (eds). Proceedings of the 10th seminar of the IFLA Section on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The Hague, Netherlands, August, 1997. München: Saur, 9-31.
- Jackson, H. L. & Hahn, T. B. (2011). Serving higher education's highest goals: assessment of the academic library as pla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5), 428-442.  
<https://doi.org/10.5860/crl-123>  
Available: <https://crl.acrl.org/index.php/crl/article/view/16178/17624>
- Jochumsen, H., Skot-Hansen, D., & Hvenegaard, C. (2010). A New Model for the Public Library in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Society. Available:  
[https://curis.ku.dk/ws/files/173562136/A\\_new\\_model\\_for\\_the\\_public\\_library.pdf](https://curis.ku.dk/ws/files/173562136/A_new_model_for_the_public_library.pdf)
- Malczewski, B. (2014). Meaningful Space in a Digital Age. in Leeder, Kim., Frierson, Eric., Bonfield, Brett, Planning Our Future Libraries: Blueprints for 2025. Chicage: ALA, 29-40.
- McDonald, A. (2006). The ten commandments revisited: the qualities of good library space.

LIBER Quarterly, 16(2). Available:

<http://dspace.library.uu.nl/bitstream/handle/1874/241452/7840-11502-1-PB.pdf?sequence=2&isAllowed=y>

- Mourdoukoutas, P. (2018, June 23). Amazon Should Replace Local Libraries to Save Taxpayers Money. Available: <https://www.ala.org/yalsa/sites/ala.org.yalsa/files/content/AmazonShouldReplaceLocalLibrariestoSaveTaxpayersMoney.pdf>
- Saunders, L. (2015). Academic libraries' strategic plans: top trends and under-recognized area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3), 285-291. <https://doi.org/10.1016/j.acalib.2015.03.011>
- Scoulas, Jung Mi (202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sense of belonging and inclusion at the academic library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7(6), 1-10. <https://doi.org/10.1016/j.acalib.2021.10246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Yun-Keum (2014). A study of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and their assess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36-237.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229>
- Chang, Yun-Keum (2015). A study of the librarians' perceptions towards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361-377.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61>
- Chang, Yun-Keum (2018). Aligning academic library makerspaces with digital literacy education spac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425-446.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425>
- Chung, Jae-Young (2012). A study on utilization method of spaces on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33-352. <http://dx.doi.org/10.16981/kliss.43.3.201209.333>
- Chung, Jae-Young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spaces' on the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3, 1-31.
- Im, Sun-Jung (2017). 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of Community Commons in University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 Kim, Bo-Young & Kwak, Seung-Jin (201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kerspace at

-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59-279. <http://dx.doi.org/10.16981/kliss.48.3.201709.259>
- Kim, Kwang-Hyun (2018). *What Architecture Teach Us: Professor Kwang-Hyun Kim's Architecture Class*. Paju: Ddstone.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5). *Handbook of Library Practi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Jae-Hoon (2020).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directions of university library building through the analysis of UC berkele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7(5), 3-12. <https://doi.org/10.7859/KIEF.2020.27.5.001>
- Lee, Yong-Jae, Park, Kyung-Seok, & Kim, Bo-In (2012).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y focused on P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33-15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Ministry of Education (2019).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2019~2023)*.
- Ministry of SMEs and Starups (2020, May 6). *Where imagination becomes reality.. 66 additional makerspaces to be selected in 2020*.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812>
- Noh, Young-Hee (2016).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changing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2), 227-25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2.227>

[부록] 전국 대학도서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현황(2003-2021)

(연도별, 도서관명 차모순)

연도	도서관명	층수	예산(원)	공간변화 구분			비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1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4~9층	30,000,000,000	○			
2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지하1층, 지상6층	10,000,000,000	○			
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4층, 지상4층	16,000,000,000	○			
4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지하2층, 지상6층	45,000,000,000	○			
5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상7층	18,000,000,000	○			
6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6층	49,600,000,000	○			
7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지상6층	10,800,000,000	○			
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신관	지상4층	4,000,000,000			○	
9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0,000,000,000			○	
10	고려대학교 CDL 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4층	44,000,000,000	○			
11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지하1층 + 지상6층), 열람실(지하2층)	16,000,000,000		○	○	
1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6층	20,000,000,000			○	
13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지하2층, 지상6층	30,000,000,000	○			
14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지하2층, 지상8층	62,000,000,000	○			
15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지상5층	12,800,000,000		○	○	
16	2009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자연과학캠퍼스)	지하2층, 지상7층	60,000,000,000	○			
17	중앙대학교 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4층	15,000,000,000		○	○	
18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지상2층	2,400,000,000		○		
19	2010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지상3층	3,000,000,000			○	
20	명지대학교 도서관	지하3층, 지상4층	45,000,000,000	○			
21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지하1층, 지상6층	22,000,000,000	○			
22	2011 전주대학교 도서관	지하2층, 지상4층	34,000,000,000	○			
23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지하1층 + 지상6층	10,000,000,000			○	
24	2012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7층	13,000,000,000	○			
25	창원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9,500,000,000	○			
26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도서관(송도)	지상7층	43,000,000,000	○			
27	2013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1층, 5층	2,900,000,000			○	
28	201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400,000,000			○	34, 35, 47 참조
29	부산대학교 도서관(제2도서관)	지상4층	3,800,000,000			○	
30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지상4층	34,000,000,000	○			
31	목포해양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3층	10,000,000,000	○			
32	20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정관)	지상8층	69,000,000,000	○			
3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층	550,000,000			○	74 참조
34	201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342,319,000			○	28, 35, 47 참조
35		BMC B1층	138,946,000			○	28, 34, 47 참조
36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	100주 기념관 2층-4층	1,000,000,000			○	
37	부산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	183,400,000			○	
38	상명대학교 학술정보관	옥상	100,000,000			○	
39		1층	100,000,000			○	
40	서강대학교 로울라도서관	4층	80,000,000			○	49 참조
41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관		52,000,000			○	
42	2017 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1층	444,000,000			○	
43	경북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지상5층	16,707,000,000		○		67 참조
44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지상1층	38,300,000,000	○			
45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4층	1,200,000,000			○	70 참조
46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910,000,000			○	
47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91,627,000			○	28, 34, 35 참조

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3호 2022

연도	도서관명	층수	예산(원)	공간변화 구분			비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48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74,774,000			○	
49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4층	94,000,000			○	40 참조
50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1층	200,000,000			○	
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층, 지상3층	14,000,000,000	○			
52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240,000,000			○	
53		1층	380,000,000		○		
54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층-지상5층	35,000,000,000		○		
55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1층	760,000,000			○	64 참조
56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산학융합캠퍼스)	지상2층	152,000,000	○			
57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춘천)	1층, 4층	50,000,000			○	94 참조
58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지하2층	500,000,000			○	88 참조
59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9,700,000,000		○		
60	대구대학교 창파도서관(경산캠퍼스)	1층	900,000,000			○	
61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66,000,000			○	
62	국립인동대학교 도서관		230,000,000			○	
63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층, 지상5층	24,387,000,000	○			86 참조
64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1층	500,000,000			○	55 참조
65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도서관)		7,500,000,000			○	
66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지상7층	27,700,000,000	○			
67	경북대학교 도서관	1층	4,500,000,000			○	43 참조
68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2층, 3층	700,000,000			○	
69	고려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 열람실	400,000,000			○	
70	국립근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층, 지상4층	5,980,000,000			○	45 참조
71	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5층	575,000,000			○	
72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	지하층, 지상4층	12,300,000,000		○	○	
73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지하층, 지상5층	1,600,000,000			○	89 참조
7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2층, 3층	2,042,000,000			○	33 참조
75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2~3층	4,079,581,000			○	
76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서관	3층	78,319,000			○	
77	한경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500,000,000			○	
78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1, 2층	710,000,000			○	
79	국립공주대학교 제2도서관(공주)		264,800,000			○	
80	국립공주대학교 공과대학분관 및 산과대학분관		241,890,000			○	
81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4~5층	266,479,000			○	
82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2층	1,000,000,000			○	
83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1-2층	1,650,000,000			○	
84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상7층	1,600,000,000			○	
85	충남대학교 도서관	지상2층, 지하2층	33,300,000,000	○			
86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신관4층, 5층	500,000,000			○	63 참조
8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지하층, 지상6층	25,000,000,000		○	○	
88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1층	134,000,000			○	58 참조
89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지상4층	9,300,000,000			○	73 참조
90	송실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300,000,000			○	
91	전남대학교 도서관	5층	23,100,000,000	○			
92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3층~5층	2,750,000,000			○	
93	호남대학교 도서관	1층	300,000,000			○	
94	2022 (예정) 강원대학교 도서관(춘천캠퍼스)	지하층, 지상5층	23,000,000,000	○			57 참조
합계			1,104,005,135,000				

\* 1번-30번(28번 제외)은 장윤금의 연구(2014)를 기초로 추가·보완하였음.  
 \* 층수 표기의 경우 1번-30번까지는 해당도서관 건물의 규모를 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31번부터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표기함.  
 \* 도서관 명칭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 비고란의 사항은 동일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 사례의 상호참조 표시임.